

# 자아조절자원과 메시지 난이도가 확증적 정보 처리(confirmatory information processing)에 미치는 영향

김류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학과 박사과정\*

정세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 배경 및 목적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의사 결정과 일치하는 정보를 불일치하는 정보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선택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조절자원과 메시지 난이도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 방법

실험을 통해 피험자의 의사 결정과 일치하는 정보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함께 제시한 후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이 자아조절자원 고갈과 메시지 난이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 결과

자아조절자원 비고갈 상황에서는 메시지 난이도에 따른 선택적 노출 정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아조절자원 고갈 상황에서는 메시지 난이도가 높은 경우 의사 결정-일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난이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의사 결정-일치 또는 불일치 정보에 따른 선택적 노출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비록 편향이 개인의 선유 경향이라 할지라도 정보를 접하는 시점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아조절자원 수준과 메시지의 난이도에 따라 편향성이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확증적 정보 처리로 인한 태도의 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합리적이고 비편향적인 사고의 함양을 위해 고민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KEYWORDS** 확증적 정보 처리, 편향 동화, 선택적 노출, 자아조절, 자아조절자원, 메시지 난이도

---

\* sabim@korea.ac.kr, First Author

\*\* sjeong@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

## 서론

“인간은 자신의 삶이 부조리하지 않다고 스스로 설득하면서 생을 보내는 동물이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이 말은 개인의 인지 편향(cognitive bias)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지 편향은 인간이 현실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의 인지적 오류를 말한다. 한 예로 특정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해당 주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따라서 해당 주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되고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된다(Duong, Pescetto, & Santamaria, 2014). 증거는 항상 양방향인 반면, 주장은 항상 일방향이므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Lord, Ross, & Lepper, 1976). 즉 개인은 정보의 객관성이나 사실과 관계 없이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고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정보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편향된 경향성, 즉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향 동화(biased assimilation)와 자신의 선택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검색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을 내포하는 개인의 편향성을 확증적 정보 처리(confirmatory information processing)라고 한다(Fischer, Fischer, Englich, & Aydin, 2011; Fischer, Greitemeyer, & Frey, 2008).

편향적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정보를 처리할 때 합리적인 것보다 빠른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Kahneman & Tversky, 1982).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고려하기보다는 의사 결정의 지름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처리 가능한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하게 된다(Lavie, Hirst, De Fockert, & Viding, 2004). 즉 빠른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적 활동을 줄여 주는 인지적 간편성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편향적 사고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편향성은 합리성을 저해하고(Haselton, Nettle, & Murray, 2005), 의사 결정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Kray & Galinsky, 2003). 또한 편향적 사고를 하는 개인은 비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Kahneman & Tversky, 1982) 편향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최근 범람하는 가짜 뉴스 역시 편향적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정치적 이념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태도의 극화(polarization) 속에서 개인의 확증 편향과 선택적 노출의 강화로 인해 가짜 뉴스 확산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pohr, 2017). 이러한 편향성이 고질적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거나 자신의 입장과 비교해서 해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태도의 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 정치적 태도의 극화, 성별 간 극화 등 타인에 대한 배타성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의 인지적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요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시점에 개인이 보유한 자아

조절자원(self-regulatory resource)으로, 조절 자원이 고갈되면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아조절자원은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인지적 과제를 목표에 맞게 수행하는 자아조절(self-regulation)의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의 가용 자아조절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자원이 고갈되면 인지적 과제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한다(Baumeister, 2002; Muraven & Baumeister 2000; Muraven & Slessareva 2003; Muraven, Tice, & Baumeister, 1998). 이러한 자원 고갈로 인한 정교한 의사 처리 능력의 제한은 곧 분석적이고 중심 경로를 통한 정보 처리의 감소와 휴리스틱에의 의존으로 이어지며(Wheeler, Brinol, & Hermann, 2007) 직관적 판단에의 의존 또한 증가한다(Pocheptsova, Amir, Dhar, & Baumeister, 2009). 이러한 자원 고갈 환경에서 나타나는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개인이 보유한 자아조절자원 수준에 따라 자신의 관점과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정보를 다르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때 개인의 관점과 반대되는 정보는 처리하기 어렵고 복잡한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관점 일치 정보는 낮은 수준의 처리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쉽게 정보 처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개인의 예상을 수반한다(Ditto & Lopez, 1992; Ditto, Scepansky, Munro, Apanovitch, & Lockhart, 1998; Fischer et al., 2005). 따라서 조절자원이 고갈된 상태의 개인은 관점 불일치 정보를 마주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회피나 가치 절하가 강화되는 반면, 관점

일치 정보는 적은 인지적 능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휴리스틱으로 기능함으로써 일치 정보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탐색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나아가 자아조절자원과 확증적 정보 처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난이도(complexity)를 살펴보았다. 자아조절자원과 메시지 난이도의 효과는 자원 일치 가설(resource matching hypothesis)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과 해당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일치할 때 소비자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Anand & Sternthal 1989; Peracchio & Meyers-Levy 1997). 또한 정보 처리의 제한 용량 모델(The limited capacity model of mediated message processing: Lang, 2000)에 따르면 이용자가 미디어 메시지를 처리하는 순간에 활용 가능한 정신적 자원(mental resource)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메시지가 요구하는 인지적 자원이 수용자의 가용 인지 자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설득이 실패할 수 있다. 즉, 메시지 효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적 자원과 메시지가 요구하는 자원의 양이 일치하는 자원 일치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조절자원 고갈 수준에 따른 관점 일치 또는 불일치 정보에 대한 평가와 검색 경향이 정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확증적 정보 처리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정보를 처리하는 시점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아조절자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해당 정보의 난이도, 즉 메시지가 요구하는 인지적 자원의 양이 자아조절자원 수준에 따른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설정

### 확증적 정보 처리

확증적 정보 처리는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편향된 경향성, 즉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을 내포하고 있다. 이때 편향 동화는 인지적(cognitive) 차원의 정보 평가(information evaluation)를 통해 나타나는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을 말하며, 선택적 노출은 행동적(behavioral) 차원의 정보 검색(information search)을 통해 나타나는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을 의미한다(Fischer et al., 2011; Fischer et al., 2008).

### 편향 동화

편향 동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 결정, 의견, 태도 및 기대에 따라 어떻게 정보를 평가하는가를 위주로 탐색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며, 따라서 지각된 정보의 질(quality)이 가장 높은 정보를 탐색하고자 한다(Fischer, Jonas, Frey, & Schulz-Hardt, 2005; Fischer, Schulz-Hardt, & Frey, 2008). 이때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인은 자신의 관점과 불일치하는(view-point inconsistent) 정보

보다 일치하는(view-point consistent) 정보를 질(quality), 타당도(relevance), 신뢰도(credibility), 그리고 중요도(importance) 측면에서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Edwards & Smith, 1996; Ditto & Lopez, 1992; Ditto et al., 1998; Greitemeyer, Fischer, Frey, & Schulz-Hardt, 2009; Greitemeyer & Schulz-Hardt, 2003; Lord et al., 1979). 즉 편향 동화는 수용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개인의 극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수용자가 다양한 정보에 교차 노출될지라도 자신의 기존 입장, 즉 기존 태도나 신념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신뢰도와 타당성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Lord et al., 1979). 이러한 편향 동화는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초기에 잘못 판단 내린 결정을 수정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Greitemeyer & Schulz-Hardt, 2003; Greitemeyer, Schulz-Hardt, Brodbeck, & Frey, 2006). 특히 조직에서 경영자의 편향 동화로 인해 경영자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관점과 반대되는 정보를 회피할 경우 의사 결정의 수정과 재검토는 더욱 어려워진다.

선행 연구 중 편향 동화가 나타나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로드와 그의 동료들(Lord et al., 1979)의 연구에서는 사형 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편향 동화 경향을 살펴보았다. 해당 실험에서는 먼저 사형 제도가 살인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 수단인가에 대한 피험자의 사전 태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절반씩 실험 집단에 배정하였다. 이후 사형 제도의 범죄 억제 측면의 실효성에 대한 상반된 결과

를 제시하는 두 연구 보고서를 읽도록 하였다. 이때 보고서 중 한 편은 사형 제도 도입 후 살인율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 주는 연구로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논점이었고, 나머지 한 편은 사형 제도를 도입한 주(state)의 살인율이 미도입 주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논점이 있었다. 두 연구에 대해 방법론적 타당성 측면과 결과의 설득력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사형 제도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피험자들은 사형 제도 찬성 연구를 타당성과 설득력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반대 입장을 보였던 피험자들은 사형 제도 반대 연구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편향 동화가 발생한 이유로 사람들이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증거보다 일치하지 않는 증거를 해당 증거가 가진 잠재적 약점 측면에서 더 철저히 검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어긋난(expectancy-disconfirming) 증거를 제시받았을 때 그 논거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반박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Edwards & Smith, 1996).

이 외에도 먼로 등(Munro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1996년 미국 대선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 맥락에서 편향 동화와 태도 극화(attitude polarization)를 살펴보았다. 피험자들의 사전 정치적 태도를 확인한 후, 당시 민주당 후보자였던 빌 클린턴과 공화당 후보자 밥 돌이 나오는 첫 공개 TV 토론회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토론회 시청 후 각 후보자에 대해 평가를 내리도록 한 결과, 빌 클린턴 지지자들은 밥 돌의 주장보다 클린턴의 주장을 더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토론의 승자로 지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반면 밥 돌 지지자들은 그와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토론회 시청 직후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1주일 후 진행한 재 실험에서도 똑같이 나타남으로써 태도 극화가 편향 동화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 선택적 노출

선택적 노출은 개인의 관점(의사 결정, 태도, 기대)과 일치하는 정보를 불일치 정보에 비해 더 검색하거나 시스템적인 선호를 보일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Fischer et al., 2011). 즉, 편향 동화가 수용자의 인지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편향이라면, 선택적 노출은 정보 검색이라는 행동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말한다. 이때 확증 편향(confirmatory bias)은 이러한 선택적 노출의 전형적 지표이다(Jonas, Schulz-Hardt, Frey, & Thelen, 2001). 확증 편향이 나타나면 자신의 선입관과 일치하거나 신념과 상반되지 않는 정보를 위주로 획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Allahverdyan & Galstyan, 2014). 예를 들어 정치인 팸플릿 선택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팸플릿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Freedman & Sears, 1963), 선거에서 자신이 투표한 정치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Chaffee & Miyo, 1983).

선택적 노출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지 부하 이론(cognitive load theory)에서 찾을 수 있다(Lavie et al., 2004). 개인이 처리 가능한 정보 양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지 부하로 인해 한 번에 많은 정보를

**Table 1.**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biased assimilation and selective exposure

	Biased Assimilation	Selective Exposure
Concept	Assessment of information that is consistent or inconsistent with one's beliefs and attitudes	Search for information that is consistent or inconsistent with one's beliefs and attitudes
Measure	Importance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Selecting what to search

처리하기 어렵고, 따라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페스팅거(Festinger, 1957)의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 결정 이후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고, 이로부터 발현되는 각성 상태를 줄이고자 한다(Festinger, 1957, 1964).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을 구매했거나 특정 후보를 선거에서 선택한 후에 더 좋은 대안이 등장할 경우,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부조화가 유발하는 심리적 불편 상태를 감소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신이 선택한 대상을 지지하는 정보를 더 많이 추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대안을 지지하는 정보는 회피하는 선택적 노출을 하게 된다(Frey, 1986).

이상의 이론적 논거를 종합하여 확증적 정보 처리 유형으로서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Table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에 기반하여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그렇다면 확증적 정보 처리는 언제 강화 또는 약화되는가?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많은 상황적 요인들이 확증적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어, 의사 결정자들은 고 몰입 상황(Schwarz, Frey, & Kumpf, 1980), 이득(gain) 프레임된 결정 문제(Fischer, Jonas, Kastenmuller, & Frey, 2008), 정보 가용성이 낮을 때(Fischer et al., 2005), 그리고 부정적 감정적 상태를 느낄 때(Jonas, Graupmann, & Frey, 2006) 확증적 경향성을 더 띄게 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요인은 자아조절자원으로, 이를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 보았다.

## 자아조절자원과 확증적 정보 처리

### 자아조절과 자아조절자원

자아조절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스스로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말한다(Vohs & Schmeichel, 2003). 예를 들어 다이어트나 금연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식이나 칼로리 높은 음식의 섭취 등 강하지만 금지된 충동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충동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이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 또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통제를 자아조절이라고 한다(Muraven et al., 1998).

하지만 금연에 성공하기 힘들 듯, 사람들이 자아

조절과 통제에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아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충동 억제에 실패함으로써 이어지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아조절 실패 상태를 자아고갈(ego depletion)이라고 한다(Baumeister, 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 이러한 자아조절 실패는 자아조절의 강도 모델(strength model of self-regulation, 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을 통해 근육과 근력 고갈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떤 일에 근육을 한 번 사용하여 근력이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근력을 추가로 소모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아조절에 필요한 자원, 즉 자아조절자원을 모두 소진하면 후속 과제에서 자아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Muraven et al., 1998). 이러한 자아조절자원의 고갈은 제한적 자원 모델(limited resource model)을 통해 이해 가능하다. 즉, 개인이 자아조절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아조절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는 자아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Baumeister, 2002; Muraven & Baumeister 2000; Muraven & Slessareva 2003; Muraven et al., 1998).

자아조절자원의 고갈이 인간의 심리·인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결과로 자원이 고갈되면 과제 중단 충동은 상승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인내는 낮아진다(Muraven et al., 1998).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자아조절자원 고갈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또한 자원 고갈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경험하는 좌절감(frustration)이나 실패감(failure)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처리 능력이 저하된다(Schmeichel, Vohs, & Baumeister, 2003). 인지적 측면에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이해력 수준이 낮아지고, 따라서 인지적 능력이 수반되는 과제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GRE 시험 등에서 자원 고갈 집단의 성적이 비고갈 집단보다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Schmeichel et al., 2003). 자원 고갈로 인한 정교한 의사 결정력의 저하는 곧 분석적이고 중심경로를 통한 정보 처리의 감소와 휴리스틱에 의존한 정보 처리의 증가로 이어진다(Wheeler et al., 2007). 즉, 조절자원이 고갈되면 소수의 대안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내리며(Schmeichel, Demaree, Robinson, & Pu, 2006) 직관적인 판단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Pocheptsova et al., 2009). 행동적 결과로는 충동구매 행동이 증가하고 과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며(Vohs & Faber, 2007),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쾌락적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다(Baumeister, 2002). 또한 자원 고갈 집단의 광고 제품 구매 가능성이 비고갈 집단보다 더 높으며(Wan, Rucker, Tormala, & Clarkson, 2010), 제품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구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Choi, Choi, & Jang, 2011). 이 외에도 조절자원이 고갈되면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위 의도가 감소하는데(Baumeister & Vohs, 2007; Xu, Begue, & Bushman, 2012), 이러한 관계를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자원이 고갈되어도 준거 집단의 기부 행동 정보를 담은 사회적 규범 단서가 포함된 기부 메시

지에 노출될 경우 기부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Jeong, 2017).

### 자아조절자원과 확증적 정보 처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절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되며, 인지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분석적 사고력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제에서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휴리스틱에 의존하여 소수 대안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자 한다. 이러한 자원 고갈 환경에서 나타나는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자아조절자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마주하게 되는 관점 일치 또는 불일치 정보의 처리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관점과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불일치하는 정보의 처리는 인지적으로 힘들고 복잡한 노력을 요하고 (Ditto & Lopez, 1992; Ditto et al., 1998), 또한 이러한 관점 불일치 정보는 자아(self)에 대한 비호의적이고 부정적인 암시를 포함하므로 수용자의 자기 개념(self-concept)을 위협하며(Pyszczynski, & Greenberg, 1987), 부조화와 부정적 감정을 환기시킨다(Frey, 1986; Kruglanski & Klar, 1987). 즉, 관점 불일치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하는 것은 더 힘이 많이 들고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당한 수준의 자기 조절을 요구하는 과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관점과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회피가 발생하고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정보 과부

하가 낮은 조절자원 비고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적 처리 능력 수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고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관점 일치 정보는 고갈된 자아에 대한 긍정적 암시와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부조화 상태와 부정적 감정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Frey, 1986; Jonas et al., 2006). 또한 관점 일치 정보는 불일치 정보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처리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쉽게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개인의 예상이 수반된다(Ditto & Lopez, 1992; Ditto et al., 1998; Fischer et al., 2005). 또한 관점 일치 정보는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휴리스틱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때 자아조절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정교하고 분석적인 정보 처리가 어렵고 주변 단서에 의존하여 직관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지적 자원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고 휴리스틱 단서로서 기능하는 관점 일치 정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한 피셔 등(Fischer et al.,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조절자원이 고갈되면 비고갈 상황보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중요도와 신뢰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일치 정보에 대한 검색을 더 많이 함으로써 확증 편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이 불일치 정보에 노출되면 관점 일치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즉각적 필요를 조절해야 하고, 관점 불일치 정보에 얽힌 부정적 지각과 감정을 반드시 견뎌내야만 한다. 따라서 관점 불일치 정보와 마주하고 처



리하는 것은 강력한 자기 조절자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자원이 고갈된 개인은 이러한 불일치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일치 정보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통해 자아조절자원과 확증적 정보 처리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1:** 자아조절자원 비고갈 상황에 비해 자원 고갈 상황에서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즉,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메시지 난이도(complexity)

앞서 살펴본 확증적 정보 처리와 자아조절자원에 대한 논의는 인지적 자원의 용량과 자원 이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조절자원 수준뿐 아니라 제시되는 정보, 즉 메시지 난이도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보 난이도에 따른 설득 효과는 자원 일치 가설(resource matching hypothesis)과 정보 처리 제한 용량 모델(limited capacity model of motivated mediated message processing)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자원 일치 가설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극, 즉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지적 자원과 해당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일치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Anand & Sternthal 1989; Peracchio & Meyers-Levy 1997). 또한 소비자의 인지적 자원이 부족할 때는 정교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보 처리가 단

순하고 표층적으로 이루어진다(Lee, Ryu, & Lee, 2005). 비슷한 예로 메이어-레비와 페라키오(Meyers-Levy & Peracchio, 1995)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인지적 자원이 적을 때에는 정교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지적 자원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흑백 광고가 더 호의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적 자원이 많을 때에는 정교화 가능성이 높아져 컬러 광고가 더 호의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메시지의 설득적 영향력은 커뮤니케이션 처리에 할당된 자원이 과업에 필요한 자원과 일치할 때 극대화되며,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요구하는 자극은 설득을 저해할 수 있다(Peracchio & Meyers-Levy, 1997).

자원 일치 이론은 개인의 인지 처리에 요구되는 자원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정보 처리의 제한 용량 모델과도 연결된다. 이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를 처리하는 순간에 활용되는 정신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정보를 처리할 때 자원을 분배하여 사용한다(Lang, 2000). 따라서 과업이 요구하는 인지적 자원이 수용자의 가용 인지 자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수용자들이 미디어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 가용 인지적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만약 자원 공급이 미디어 메시지 처리에 필요한 자원의 수요와 맞지 않으면 정보 처리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메시지 자극을 통한 설득적 효과의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이 공급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과 메시지가 요구하는 자극 수요의 양이 일치하는, 자원 일치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시지 난이도는 독해 용이성(readability)과

정보의 양(quantity)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독해 용이성과 설득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모호하게(ambiguous) 작성된 설득 메시지보다 설명적으로(expository) 작성된 메시지가 제시될 경우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으며,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제품 구매 의도가 나타났다. 또한 제품의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쓴 메시지에 노출된 소비자가 제품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adley & Meeds, 2004). 다른 연구에서도 제품 메시지가 복잡하거나 어렵게 제시될 경우 소비자들은 인지적 정보 처리 용량의 제한으로 인해 회상율(recall)이 낮게 나타났고, 제품에 대한 태도도 더 낮게 나타났다(Lowrey, 2006). 정보의 양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개인의 의사 결정과 불일치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일치 정보에 대한 더 강력한 선호가 발생한다(Fischer et al., 2008). 또한 의사 결정과 관련한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의사 결정 과정의 난이도가 증가하며, 높아진 난이도와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 결정에 대한 종결 욕구(need for closure)가 활성화된다(Kruglanski & Webster, 1996). 이처럼 메시지의 독해 용이성과 정보의 양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는 정보 처리의 어려움을 느껴 중심 경로보다 주변 경로에 의한 정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Park & Park, 2009). 즉, 메시지 난이도가 높을수록 메시지에 담긴 정보를 인지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하여 처리하기보다는 메시지가 전달하는 정서적인 주변 단서를 바탕으로 비분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따라서 자신의 신념이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를 긍정적인 단서로

유추하여 처리함으로써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이 발현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는 자아조절자원이 한정적이므로 자아조절 과제의 수행이 자원의 고갈을 낳고, 결과적으로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자아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제한된 자아조절자원 모델(Baumeister, 2002)과 이론적 맥락을 같이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아조절자원이 고갈되면 인지적 노력의 투입이 필요한 정교한 의사처리 과정에 개입할 능력이 제한되어 체계적이고 중심 경로를 통한 정보의 처리보다 직관적 판단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Wheeler et al., 2007; Pocheptsova et al., 2009). 따라서 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인지적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자원을 많이 요구하는 메시지의 처리는 정보 처리나 설득에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자원 고갈 상황에서는 정보에 대한 깊은 인지적 사고를 요할 경우 정보 처리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설득을 이끌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자원 고갈 수준과 확증 편향성의 관계가 정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원 고갈 상황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정보를 제시할 경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 가용 자원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때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과 불일치하는 정보는 정보 처리가 더 어렵고 복잡하며(Ditto & Lopez, 1992; Ditto et al. 1998), 따라서 정보 과부하가 높은 상황에서는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처리할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일치하는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된다(Bodenhausen & Lichtenstein, 1987; Macrae,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 $N = 276$ )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136	49.3
	Female	140	50.7
Age	20's	70	25.4
	30's	69	25.0
	40's	71	25.7
	over 50's	66	23.9

Hewstone, & Griffiths, 1993). 즉, 인지적 자원이 일치하지 않는, 즉 고 난이도 메시지가 제시될 경우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통해 메시지 난이도에 따른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나아가 자아조절자원의 고갈 수준과 확증 편향성의 관계에 있어서 메시지 난이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2:** 메시지 난이도가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즉,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 자아조절자원 비고갈 상황에 비해 고갈 상황에서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즉,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이 나타나는 경향은 메시지 난이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시지 난이도가 높은 경우 자원 고갈 상황에서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이 강화될 것이다.

## 연구 방법

### 실험 설계 및 대상

실험은 자아조절자원 수준 2(자원 고갈 vs. 자원 비고갈) × 메시지 난이도 수준 2(난이도 저 vs. 난이도 고) 요인 설계를 적용하였다. 피험자는 시장조사 업체 한국리서치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 60대 일반인 276명을 모집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자아조절자원 수준과 메시지 난이도에 따른 4집단 중 하나에 무선 할당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 실험 참가자들의 성비가 적절하였고(남성 : 여성 = 49 : 51), 평균 연령은 38.2세( $SD = 11.83$ )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 실험 절차

실험은 2018년 1월 서울 소재 대학교 내의 개인 컴퓨터가 마련된 별도의 실험실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은 크게 (1) 자아조절자원 고갈 조작을 위한 과제와 (2) 확증적 정보 처리 측정을 위한 과제 두 파트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에게 실험 목적과

소요 시간,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전달한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 자아조절자원 고갈 과제

본격적인 자아조절자원 고갈 조작에 앞서 먼저 피험자들의 사전 피로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집단 간 피로 수준과 에너지 보유 수준이 다를 경우 이후 이어질 자원 고갈 과제 수행 및 결과 분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이후 자아조절자원 고갈 수준을 조작하기 위한 과제로 영문 알파벳 e 찾기 과제를 적용하였다(Baumeister et al., 1998; DeWall, Baumeister, Gailliot, & Maner, 2008; Wan & Sternthal, 2008; Wheeler et al., 2007). 그중에서도 보메이스터 등(Baumeister et al., 1999)이 활용한 방법을 드월 등(DeWall et al., 2008)이 수정한 과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과제로 두 집단 모두에게 A4 한 장 반 분량의 영문 기사를 제시한 후 알파벳 e가 나올 때마다 체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과제 수행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였다. 이후 2차 과제에서는 1차 과제와 유사한 분량의 다른 내용의 영문 기사를 주고 10분 동안 알파벳 e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때 자원 고갈 수준 조작에 따라 두 집단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e 찾기를 지시하였는데, 자원 고갈 집단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e에는 체크하지 않도록 했다(① e의 앞/뒤에 a, e, i, o, u(모음) 중 한 글자라도 연속하여 나오는 경우, ② 단어에 e를 제외 시 하나의 모음만 남는 경우, ③ e의 앞/뒤 한 글자 건너 모음이 나오는 경우, ④ e로 시작 또는 끝나는 경우). 이처럼 1차 과제와 2차 과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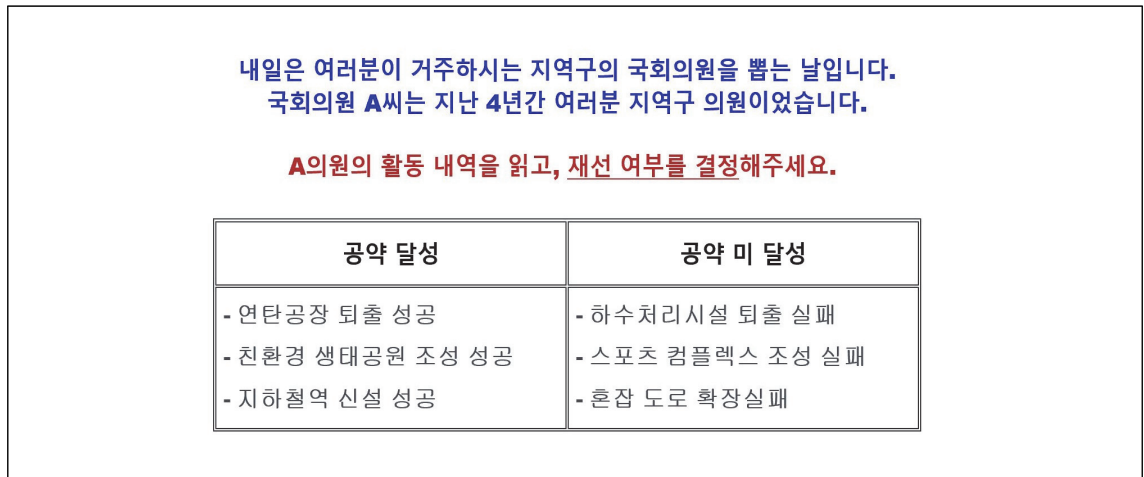
를 두는 것은 처음 따랐던 기준에 적용된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충동을 무효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습관의 유지와 파괴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원 고갈이 일어나게 된다(DeWall et al., 2008). 반면, 자원 비고갈 집단은 2차 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외 조건 없이 e 찾기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자원 고갈 과제를 수행한 이후에는 BMIS(Brief Mood Introspection Scale: Mayer & Gaschke, 1988)를 통해 피험자들의 감정 상태를 측정했다. 이는 피험자들이 자원 고갈 과제를 수행하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향후 측정될 항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기 위함에서다. 이후 e 찾기 과제가 자원 고갈 조작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작 검증을 실시하였다.

### 확증적 정보 처리 과제

확증적 정보 처리는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을 포함하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편향성으로 정의하고(Fischer et al., 2011; Fischer et al., 2008), 편향 동화는 의사 결정-일치 및 의사 결정-불일치 정보에 대한 중요도 및 신뢰도 평가, 선택적 노출은 의사 결정-일치 및 의사 결정-불일치 정보에 대한 검색 행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 측정을 위한 과제는 피셔 등(Fischer et al., 2008)이 사용한 과제를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선거 투표 상황(상반된 정치 성향을 가진 정당 두 곳 중 한 곳에 투표하는 상황)과, 인물 평가 상황(점포의 매니저 재



**Figure 1.** Confirmatory information processing task

계약에 대한 의사 결정 상황)을 각각 실험에 적용하였다. 이때 정치적 성향에 대한 태도 표현은 편향된 정보 평가와 검색에 대한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된 패러다임이다(Fischer et al., 2005; Frey, 1986). 하지만 정당에 대한 선택은 기존에 이미 형성된 태도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자아조절자원 고갈의 효과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또한 정치적 태도는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맥락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가상의 의사 결정 케이스를 제시하는 것이 개인의 사전 지식과 태도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상황을 조합, 변형하여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해당 의원의 재선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상황’을 적용하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의원의 이름도 가명 처리(A씨)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과 태도가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험자들에게 지난 4년간 지역구를 맡아 온 의원의 재선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상황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이후 의원 A의 지난 4년간 공약 이행·불이행 사항에 대한 정보를 각 3개씩 제시한 후 그를 바탕으로 재선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Figure 1〉 참고). 이때 피험자들의 찬성 또는 반대는 기존 의사 결정(standpoint decision)이 되며, 이후 분석에서 결정-일치(decision-consistent) 및 결정-불일치(decision-inconsistent)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의사 결정을 내린 이후 피험자들에게 A의원의 재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찬성 의견 메시지 6개와 반대 의견 메시지 6개를 제시하였다. 각 메시지는 앞서 제시된 공약 이행 또는 불이행 사항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주민들의 입장 표명

**Table 3.** Examples of message complexity manipulation

	Low Message Complexity	High Message Complexity
Manipulation	읽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한 단어로 구성하고, 문장 길이를 짧게 하여 적은 양의 정보 제시	전문적인 용어와 독해가 어려운 단어로 구성하고, 문장 길이를 길게 하여 많은 양의 정보 제시
Examples	“재선 찬성합니다. 연탄 공장이 퇴출돼서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재선 찬성합니다. 연탄공장 퇴출 이후 공기 중 유해 가스가 80% 감소했으며, 공기 중 일산화탄소(CO)는 12.4ppm으로 1시간 평균 기준치 25ppm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공기 중 총 탄산가스는 765ppm 낮아졌습니다.”
	“재선 반대합니다. 하수 처리 시설 때문에 악취가 심합니다.”	“재선 반대합니다. 하수 처리 시설에서 악취의 원인이 되는 8물질(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2황화메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이 평균 기준치의 200% 이상의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과 그에 대한 근거 논점을 포함하는 두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12개의 메시지는 난이도 차원에서 두 수준(고 vs. 저)으로 조작하였는데, 난이도는 선행 연구(Bradley & Meeds, 2004; Fischer et al., 2008; Lowrey, 2006)를 참고하여 독해 용이성과 정보의 양 측면에서 조작하였다. 즉, 메시지 난이도-저 집단은 난이도가 낮게 조작된 12개의 메시지(찬성 및 반대 각 6개)를 읽고, 난이도-고 집단은 난이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작된 12개의 메시지(찬성 및 반대 각 6개)를 읽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메시지 조작과 예시는 <Table 3>과 같다. 피험자들이 각 메시지를 충분히 읽도록 한 후 메시지 난이도 조작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연구의 종속변인인 편향 동화(중요도 및 신뢰도 평가) 및 선택적 노출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및 연령 등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확인한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전체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다.

**측정 문항**

**사전 피로도: 무선 할당 확인(randomization check)**

사전 피로도는 선행 연구(Xu et al., 2012)를 참고하여 “지금 나는 에너지가 많다”, “지금 나는 피곤하다(역코딩)”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 = .70$ ). 이 두 문항은 실험 조건별로 사전 피로도의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무선 할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BMIS(Brief Mood Introspection Scale): 혼란 확인(confounding check)**

감정 측정 척도(Mayer & Gaschke, 1988)를 통해 여덟 가지 감정 상태(행복함, 다정함, 차분함, 원기왕성함, 두려움, 화가 남, 피곤함, 슬픔)을 대표하는 형용사를 두 개씩 제시하고 각 해당하는 감정을 느낀 정도를 4점 척도(전혀 느끼지 않음~매우 느낌)로 측정하였다. 이때 16가지 감정 형용사는 선

행 연구에서 활용한 단어를 연구에 맞게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행복함(즐거움, 활기 넘치는), 다정함(상냥한, 애정 있는), 차분함(평온한, 만족하는), 원기 왕성함(기운 넘치는, 의욕적인), 두려움(불안한, 초조한), 화가 남(불만스러운, 싫증난), 피곤함(피곤한, 나른한), 슬픔(우울한, 슬픈). 피험자들의 감정 상태 측정은 자원 고갈 과제가 피험자의 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향후 응답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위한 것으로 실험 집단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자원 고갈 조작 검증

자원 고갈에 대한 조작 검증은 선행 연구(Xu et al., 2012)를 참고하여 “알파벳 e 찾기는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했다”, “알파벳 e 찾기 과제를 하기 힘들었다”, “알파벳 e 찾기에 적용된 지시 사항에 따르는 것은 어려웠다”, “알파벳 e 찾기를 하는 동안 나는 피로함을 느꼈다”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93$ ).

### 메시지 난이도 조작 검증

메시지 난이도에 대한 실험 처치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작 검증은 앞서 읽은 재선에 대한 찬성/반대 글에 대해 “내용이 복잡하다”, “내용이 어렵다”, “내용이 쉽다(역코딩)”, “내용이 단순하다(역코딩)”의 4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94$ ).

### 확증적 정보 처리

#### 편향 동화(정보 평가)

편향 동화는 재선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12개의 정보에 대한 중요도와 신뢰도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다. 중요도는 “여러분이 A의원의 재선을 결정하는 데 다음의 재선 찬성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A의원의 재선을 결정하는 데 다음의 재선 반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문항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여러분이 A의원의 재선을 결정하는 데 다음의 재선 찬성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A의원의 재선을 결정하는 데 다음의 재선 반대 정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두 문항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중요도와 신뢰도 평가 척도의 항목 간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 $r = .773$ ,  $p < .001$ ) 찬성과 반대 정보에 대한 각 중요도와 신뢰도 평가를 평균하여 새로운 ‘(a) 찬성 정보 평가’ 및 ‘(b) 반대 정보 평가’ 변인을 생성하였다.

최종 분석을 위해 의사 결정-일치 정보에 대한 평가 점수와 의사 결정-불일치 정보에 대한 평가 점수의 차이 값을 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피험자가 의사 결정 시 ‘재선 찬성’을 선택했을 경우 [(a) 찬성 정보 평가 평균 - (b) 반대 정보 평가 평균] 값을 계산하고, ‘재선 반대’를 선택했을 경우 [(b) 반대 정보 평가 평균 - (a) 찬성 정보 평가 평균] 값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편향 동화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평가 점수의 차이 값이 클수록 자신의 기준 의사 결정과 일치하는 정보를 불일치하는 정보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며, 이는 편향 동화의 정도를 보여 준다.

### 선택적 노출(정보 검색)

선택적 노출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의사 결정-일치 및 의사 결정-불일치 정보 검색을 위한 정보 선택 빈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중요도와 신뢰도 평가를 마친 피험자들에게 앞서 읽은 A의원에 대한 정보 12개를 다시 제시한 후, 그중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고 싶은 정보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후 각 개인의 찬성 정보 선택 개수의 합과 반대 정보 선택 개수의 합을 구하여 새로운 '(c) 찬성 정보 선택', '(d) 반대 정보 선택' 변인을 생성하였다.

최종 분석은 피험자가 의사 결정 시 '재선 찬성'을 선택했을 경우 [(c) 찬성 정보 선택 - (d) 반대 정보 선택] 값을 계산하고, 반대로 '재선 반대'를 선택했을 경우 [(d) 반대 정보 선택 - (c) 찬성 정보 선택] 값을 계산하여 최종 선택적 노출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값이 클수록 최초에 내린 기준 의사 결정과 일치하는 정보를 불일치하는 정보에 비해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택적 노출의 정도를 보여 준다.

## 결과 분석

### 사전 분석

#### 사전 피로도

두 집단(자원 고갈 vs. 자원 비고갈)의 사전 피로도를 확인한 결과, 자원 비고갈 집단( $M_{\text{비고갈}} = 3.04$  ( $SD = 0.83$ ))과 고갈 집단( $M_{\text{고갈}} = 3.01$  ( $SD = 0.90$ ))의 사전 피로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t = -.28, p > .1$ ). 이로써 피험자의 무선 할당을 확인하였다.

### BMIS(Brief Mood Introspection Scale)

자원 고갈을 위한 e 찾기 과제가 피험자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MIS를 통해 감정 상태를 측정된 결과, 과제에 따른 집단 간 감정 상태는 차이나지 않았다( $M_{\text{비고갈}} = 2.22$  ( $SD = 0.26$ ),  $M_{\text{고갈}} = 2.22$  ( $SD = 0.25$ ),  $t = .06, p > .1$ ). 이로써 본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종속 변인인 확증적 정보 처리에 대한 자아조절자원의 영향이 자원 고갈 과제 자체가 유발시키는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 자원 고갈 조작 검증

e 찾기를 통한 자원 고갈 조작의 타당성 확인을 위한 조작 검증 결과, 자원 비고갈 집단( $M = 2.20$  ( $SD = 1.12$ ))보다 고갈 집단( $M = 4.75$  ( $SD = 1.54$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내에서 e 찾기 과제의 난이도를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15.68, p < .001$ ). 이로써 e 찾기를 통한 자원 고갈 조작이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메시지 난이도 조작 검증

메시지 조작을 통한 메시지 내용의 난이도 지각 수준을 확인한 결과, 쉬운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어려운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보다 난이도를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내( $M_{\text{난이도 저}} = 2.70$  ( $SD = 1.61$ ),  $M_{\text{난이도 고}} = 5.02$  ( $SD = 2.00$ ),  $t = -$



**Table 4.** Two-way analysis of variance (DV: Selective exposure)

Source	SS	df	MS	F	p
Self-regulatory resource level (A)	.41	1	.41	.42	.518
Message complexity (B)	5.22	1	5.22	5.37	.021
(A) x (B)	4.14	1	4.14	4.27*	.040
Error	277.88	272			
Total	283.21	276			

\* $p < .05$ 

10.62,  $p < .001$ ] 메시지 난이도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 연구가설 검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독립 변수로 자아조절자원 수준(자원 고갈 vs 자원 비고갈)과 메시지 난이도(난이도 저 vs. 난이도 고)를, 종속 변수로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을 설정하여 이변량 분산 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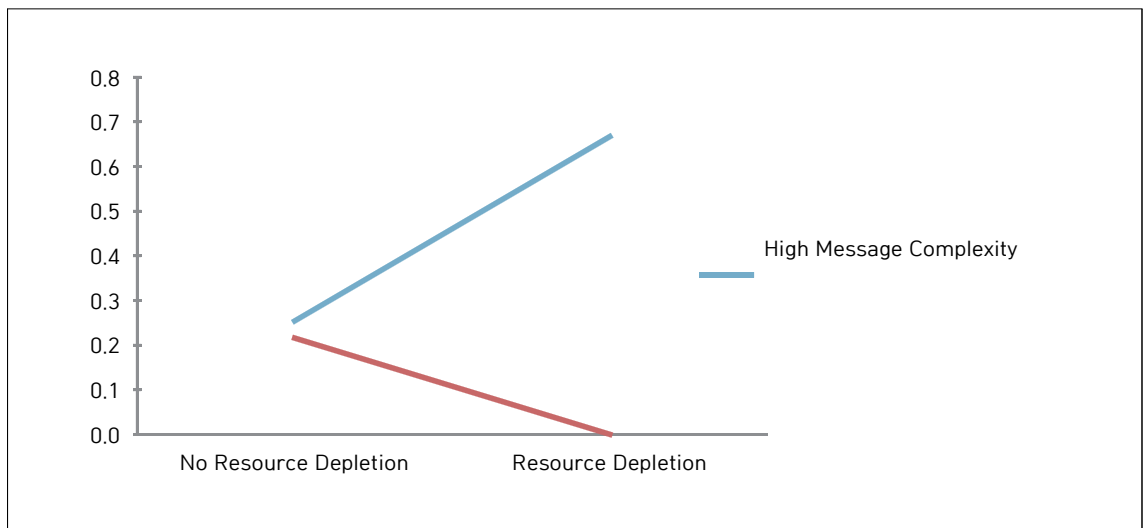
〈연구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 먼저 편향 동화에 대한 조절자원의 주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M_{\text{비고갈}} = 1.12(SD = 1.46)$ ,  $M_{\text{고갈}} = 1.26(SD = 1.58)$ ,  $F = .50$ ,  $p > .1$ ). 선택적 노출에 대해서도 조절자원이 미치는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M_{\text{비고갈}} = .24(SD = 1.05)$ ,  $M_{\text{고갈}} = .30(SD = 1.20)$ ,  $F = .42$ ,  $p > .1$ ). 이로써 자아조절자원의 고갈이 편향 동화 및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 1〉을 지지하지 못하였다(〈Table 4〉참고).

다음으로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편향 동화에 대해서는 메시지 난이도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M_{\text{난이도 저}} = 1.33(SD = 1.84)$ ,  $M_{\text{난이도 고}} = 1.05(SD = 1.08)$ ,  $F = 2.39$ ,  $p > .1$ ). 그러나 선택적 노출에 대해 메시지 난이도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M_{\text{난이도 저}} = .10(SD = 1.24)$ ,  $M_{\text{난이도 고}} = .43(SD = .98)$ ,  $F = 5.37$ ,  $p < .05$ ). 이로써 메시지 난이도가 높을수록 의사 결정과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연구가설 2〉가 부분 지지되었다(〈Table 4〉참고).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3〉에 대한 검증 결과 마찬가지로 편향 동화에 대한 자원 고갈 수준과 메시지 난이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 = 2.34$ ,  $p > .1$ ). 반면, 자아조절자원의 고갈이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메시지 유형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4.27$ ,  $p < .05$ ). 구체적으로, 자원 비 고갈 집단에서는 난이도에 따른 선택적 노출 정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M_{\text{난이도 저}} = .22(SD = 1.17)$ ,  $M_{\text{난이도 고}} =$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DV: Selective exposure)

Self-regulatory resource level	Low Message Complexity		High Message Complexity	
	<i>M</i>	<i>SD</i>	<i>M</i>	<i>SD</i>
No depletion	.22	1.17	.25	.95
Depletion	.00	1.29	.67	.98



**Figure 2.** Interaction by self-regulatory resource level and message complexity on selective exposure

.25(*SD* = .95)]. 하지만 자원 고갈 집단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이 난이도가 낮은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보다 의사 결정-일치 정보를 의사 결정-불일치 정보보다 더 많이 검색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M_{\text{난이도저}} = .00$ (*SD* = 1.29),  $M_{\text{난이도고}} = .67$ (*SD* = .98)](〈Table 4〉, 〈Table 5〉, 〈Figure 2〉 참고).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개인의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확증적 정보 처리는 개인의 신념 및 의사 결정과 일치하는 정보를 불일치 정보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편향 동화), 추가 정보를 더 검색하고자 하는(선택적 노출)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된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자아조절자원 고갈 수준(자원 고갈 vs. 자원 비고갈) 과 제시되는 정보, 즉 메시지 난이도(난이도 저 vs. 난이도 고)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에 대한 자아조절 자원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연구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확증적 정보 처리 연구에서 정보 난이도 고려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연구가설 2〉 검증 결과 메시지 난이도에 따라 자아조절자원 수준에 따른 선택적 노출 경향성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점-일치 및 관점-불일치 정보가 요구하는 인지적 자원의 수요뿐 아니라 해당 정보가 요구하는 인지적 자원의 수준이 어떠한지, 즉 수용자 관점에서 얼마나 독해하기 용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측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과 그에 대한 자아조절자원의 역할을 정교하게 측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아조절자원과 선택적 노출과의 관계에서 메시지 난이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아조절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메시지의 난이도에 따른 일치 정보에 편향된 선택적 노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조절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인지적 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메시지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났다. 하지만 조절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는 메시지 난이도가 낮은 경우보다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서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조절자원이 고갈되어 인지적 자원이 저하된 상황에서는 높은 난이도의 메시지에 노출된 경우 자신이 내린 의사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보다 결정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자원이 고갈된 상황에서도 낮은 난이도의 메시지에 노출된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적 노출 경향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자아조절자원과 메시지 난이도가 확증적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 차원(편향 동화)이 아닌 행동적 차원(선택적 노출)에서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조절자원과 메시지 난이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주어진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적 차원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하는 행동적 차원에서 보다 강하게 나왔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아조절 자원의 고갈이 확증적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난이도가 높은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은 주어진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적 과업을 회피하게 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하는 행동적 과업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확증적 정보 처리를 증가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함의를 지닌다. 먼저 확증적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조절자원 개념의 적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편향성 연구의 이론적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정보를 접하는 시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메시지가 요구하는 인지적 처리 수준이 편향적 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편향성을 낮출 수 있는 전략적 가이드를 제시한다. 즉, 비록 편향이 개인의 선유 경향

(predisposition)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 시점에 보유한 자아조절자원의 수준과 제시되는 해당 정보의 난이도에 따라 정보 처리 편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확증적 정보 처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정치 캠페인(예: 선거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헬스 캠페인(예: 금연이나 건강 관련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캠페인 수용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판단을 바탕으로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선거 캠페인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인이 소개되는 팸플릿을 더 선택하고(Freedman & Sears, 1963), 선거에서 자신이 투표한 정치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Chaffee & Miyo, 1983).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어떻게 메시지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난이도가 높은 메시지는 통계치가 포함된 메시지로 질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난이도가 높은 메시지가 반드시 설득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아조절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독해가 용이하고, 제시하는 정보의 양이 많지 않은 메시지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의견과 다른 정보도 폭넓게 선택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양극의 입장이 존재하는 이슈(예: 정치 이슈)에 있어서 경쟁 진영에 속해 있는 상대(예: 특정 당 지지자)나 아직 태도를 정하지 않은 대상(예: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설득적 메시지를 제공할 때, 자원 고갈이 높게 발생하는 상황(회사 퇴근 시간 등)에서는 핵심적 정보를 쉬

운 언어로 제시함으로써 양측 정보를 균형 있게 처리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광고 메시지 수립 전략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의 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의견이 양분화 된 이슈(정치, 난민 이주, 낙태, 금연 등)에 대한 공익 광고 또는 의료 광고 등을 집행하고자 할 때,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에 인지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여 시청자의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킬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과 결합시킬 경우에는 광고 메시지를 단순화함으로써 정보 부하를 최소화하는 자원 일치 전략이 이슈에 대한 편향을 감소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오락·예능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어지는 광고에서 통계 수치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강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균형 있게 정보를 처리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득 메시지의 테일러링(tailoring) 측면에서 보면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집단의 경우 인지 욕구(need for cognition)가 높은 성향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광고 역시 정보를 많이 담은 질 높은 광고 메시지를 결합하는 전략이 적합하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 결과는 맞춤형 메시지 전략을 수립할 때 단지 개인적 성향뿐 아니라 메시지를 접하는 시점에 개인이 보유한 자아조절자원의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와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먼저 메시지 난이도에 따라 자원 고갈 또는 비고갈 집단의 선택적 노출 경향이 다르게 나타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메시지 처리에 필

요한 인지적 노력 수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증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바,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이 메시지 처리에 투입한 인지적 노력 수준을 함께 측정하여 메시지 난이도의 조절적 영향이 나타난 원인과 심리적 매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 자아조절자원의 고갈과 메시지 난이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편향 동화에서 나타나지 않고 선택적 노출에 대해서만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편향 동화와 선택적 노출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선택적 노출은 불일치 정보의 타당도에 대한 낮은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Fischer et al., 2011; Fischer et al., 2008; Fischer, 200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이를 재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실험물 처리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적용할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한 피험자들의

사전 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익명의 인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실존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의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연구의 외적 타당도 및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성을 확인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제품 구매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의사 결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확증적 정보 처리 경향을 확인한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별, 세대별, 정치적 성향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상대에 대한 배타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편향적 사고의 함양을 위해 고민하는 커뮤니케이션 실무자들에게 본 연구가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Allahverdyan, A. E., & Galstyan, A. (2014). Opinion dynamics with confirmation bias. *PLoS one*, *9*(7), e99557.
- Anand, P., & Sternthal, B. (1989). Strategies for designing persuasive messages: Deductions from the resource matching hypothesis. In P. Cafferata & A. M. Tybout (Eds.), *Cognitive and affective responses to advertising* (pp. 135-159). Lexington, MA, England: Lexington Books/D. C. Heath and Com.
- Baumeister, R. F. (2002). Yielding to temptation: Self-control failure, impulsive purchasing,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8*(4), 670-676.
- Baumeister, R. F., Bratslavsky, E., Muraven, M. R., & Tice, D. M. (1998). Ego depletion: Is the active self a limited resou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52-1265.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7). Self-regulation, ego depletion, and motivatio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1), 115-128.
- Bodenhausen, G. V., & Lichtenstein, M. (1987). Social stereotypes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The impact of task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871-880.
- Bradley, S. D., & Meeds, R. (2004). The effects of sentence-level context, prior word knowledge, and need for cognition on information processing of technical language in print ad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4*(3), 291-302.
- Chaffee, S. H., & Miyo, Y. (1983). Selective exposure and the reinforcement hypothesis: An intergenerational panel study of the 1980 presidential campaign. *Communication Research*, *10*(1), 3-36.
- Choi, J. Y., Choi, Y. S., & Jang, E. Y. (2011).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ory Resour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line Word-of-Mouth and Product Attitud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2*(3), 499-524.
- DeWall, C. N., Baumeister, R. F., Gailliot, M. T., & Maner, J. K. (2008). Depletion makes the heart grow less helpful: Helping as a function of self-regulatory energy and genetic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2), 1653-1662.
- Ditto, P. H., & Lopez, D. F. (1992). Motivated skepticism: Use of differential decision criteria for preferred and nonpreferred conclu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568-584.
- Ditto, P. H., Scepansky, J. A., Munro, G. D., Apanovitch, A. M., & Lockhart, L. K. (1998). Motivated sensitivity to preference-inconsiste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53-69.
- Duong, C., Pescetto, G., & Santamaria, D. (2014). How value-glamour investors use financial information: UK evidence of investors' confirmation bias. *The European Journal of Finance*, *20*(6), 524-549.
- Edwards, K., & Smith, E. E. (1996). A disconfirmation bias in the evaluation of argu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5-24.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estinger, L. (1964). *Conflict, decision, and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scher, J., Fischer, P., Englich, B., Aydin, N., & Frey, D. (2011). Empower my decisions: The effects of power gestures on confirmatory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6), 1146-1154.
- Fischer, P., Greitemeyer, T., & Frey, D. (2008). Self-regulation and selective exposure: The impact of depleted self-regulation resources on

- confirmatory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3), 382-395.
- Fischer, P., Jonas, E., Frey, D., & Kastenmüller, A. (2008). Selective exposure and decision framing: The impact of gain and loss framing on confirmatory information search after deci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2), 312-320.
- Fischer, P., Jonas, E., Frey, D., & Schulz-Hardt, S. (2005).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The impact of information limi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4), 469-492.
- Fischer, P., Schulz-Hardt, S., & Frey, D. (2008). Selective exposure and information quantity: How different information quantities moderate decision makers' preference for consistent and inconsiste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2), 231-244.
- Freedman, J. L., & Sears, D. O. (1963). Voters preferences among types of information. In *American Psychologist* (Vol. 18, No. 7) (pp. 375-375). Washington, DC: Amer Psychological Assoc.
- Frey, D. (1986). Recent research on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9) (pp. 41-80). NY: Academic Press.
- Greitemeyer, T., Fischer, P., Frey, D., & Schulz-Hardt, S. (2009). Biased assimilation: The role of source posi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1), 22-39.
- Greitemeyer, T., & Schulz-Hardt, S. (2003). Preference-consistent evaluation of information in the hidden profile paradigm: Beyond group-level explanations for the dominance of shared information in group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22-339.
- Greitemeyer, T., Schulz-Hardt, S., Brodbeck, F. C., & Frey, D. (2006). Information sampling and group decision making: The effects of an advocacy decision procedure and task experi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2*(1), 31-42.
- Haselton, M. G., Nettle, D., & Murray, D. R. (2005). The evolution of cognitive bias. In D. M. Buss (Ed.), *The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pp. 724-746). John Wiley & Sons, Inc.
- Jonas, E., Graupmann, V., & Frey, D. (2006). The influence of mood on the search for supporting versus conflicting information: Dissonance reduction as a means of mood regul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 3-15.
- Jonas, E., Schulz-Hardt, S., Frey, D., & Thelen, N. (2001). Confirmation bias in sequential information search after preliminary decisions: An expansion of dissonance theoretical research on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4), 557-571.
- Kahneman, D., & Tversky, A. (1982). The psychology of preferences. *Scientific American*, *246*(1), 160-173.
- Kahneman, D., & Tversky, A. (2013).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In L. C. MacLean & W. T. Ziemba (Eds.), *Handbook of the fundamentals of financial decision making* (pp. 99-127). World Scientific Publishing.
- Kim, R. W., & Jeong, S. H., (2017). The effects of self-regulatory resource on donation behavior: Moderating effects of persuasive messages using social normative cu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5), 379-404.
- Kray, L. J., & Galinsky, A. D. (2003). The debiasing effect of counterfactual mind-sets: Increasing the search for disconfirmatory information in group decis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1*(1), 69-81.
- Kruglanski, A. W., & Klar, Y. (1987). A view from a bridge: Synthesizing the consistency and attribution paradigms from a lay epistemic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2), 211-241.
- Kruglanski, A. W., & Webster, D. M. (1996). Motivated

- closing of the mind: "Seizing" and "freezing". *Psychological Review*, 103(2), 263-283.
- Lang, A. (2000). The limited capacity model of mediated message process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0(1), 46-70.
- Lavie, N., Hirst, A., De Fockert, J. W., & Viding, E. (2004). Load theory of selective attention and cognitive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3(3), 339-354.
- Lee, H. J., Ryu, G. S., & Lee, D. H. (2005). The effects of visual polysemy in advertising: The role of cognitive resources and product type. *Korean Management Review*, 34(1), 167-188.
- Lord, C. G., Ross, L., & Lepper, M. R. (1979).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1), 2098-2109.
- Lowrey, T. M. (2006). The relation between script complexity and commercial memorability. *Journal of Advertising*, 35(3), 7-15.
- Macrae, C. N., Hewstone, M., & Griffiths, R. J. (1993). Processing load and memory for stereotype-based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1), 77-87.
- Mayer, J. D., & Gaschke, Y. N. (1988). The experience and meta-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1), 102-111.
- Meyer-Levy, J., & Peracchio, L. A. (1995).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colors: How the correspondence between available and required resources affects attitud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121-138.
- Munro, G. D., Ditto, P. H., Lockhart, L. K., Fagerlin, A., Gready, M., & Peterson, E. (2002). Biased assimilation of sociopolitical arguments: Evaluating the 1996 US presidential debat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 15-26.
- Muraven, M., & Baumeister, R. F.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126(2), 247-259.
- Muraven, M. R., & Slessareva, E. (2003). Mechanisms of self-control failure: Motivation and limited resour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7), 894-906.
- Muraven, M. R., Tice, D. M., & Baumeister, R. F. (1998). Self-control as limited resource: Regulatory depletion patter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74-789.
- Park, S. B., & Park, J. O. (2009). *Consumer Behavior*. Seoul: Booknet.
- Peracchio, L. A., & Meyers-Levy, J. (1997). Evaluating persuasion-enhancing techniques from a resource-matching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4(2), 178-191.
- Pocheptsova, A., Amir, O., Dhar, R., & Baumeister, R. F. (2009). Deciding without resources: Resource depletion and choice in contex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6(3), 344-355.
-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7). Toward an integration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erspectives on social inference: A biased hypothesis-testing model.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pp. 297-340). Academic Press.
- Schwarz, N., Frey, D., & Kumpf, M. (1980). Interactive effects of writing and reading a persuasive essay on attitude change and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1), 1-17.
- Schmeichel, B. J., Demaree, H. A., Robinson, J. L., & Pu, J. (2006). Ego depletion by response exagger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1), 95-102.
- Schmeichel, B. J., Vohs, K. D., & Baumeister, R. F. (2003). Intellectual performance and ego depletion: Role of the self in logical reasoning and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1), 33-46.



- Spohr, D. (2017). Fake news and ideological polarization: Filter bubbles and selective exposure on social media. *Business Information Review*, 34(3), 150-160.
- Vohs, K. D., & Faber, R. J. (2007). Spent resources: Self-regulatory resource availability affects impulse buy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3(4), 537-548.
- Vohs, K. D., & Schmeichel, B. J. (2003). Self-regulation and the extended now: Controlling the self alters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217-230.
- Wan, E. W., Rucker, D. D., Tormala, Z. L., & Clarkson, J. J. (2010). The effect of regulatory depletion on attitude certain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7(3), 531-541.
- Wan, E. W., & Sternthal, B. (2008). Regulating the effects of depletion through monitor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 32-46.
- Wheeler, S. C., Brinol, P., & Hermann, A. D. (2007). Resistance to persuasion as self-regulation: Ego-depletion and its effects on attitude change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1), 150-156.
- Xu, H., Begue, L., & Bushman, B. J. (2012). Too fatigued to care: Ego depletion, guilt,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1183-1186.

최초 투고일 2018년 05월 30일

논문 심사일 2018년 07월 27일

논문 수정일 2018년 08월 08일

게재 확정일 2018년 08월 11일

# The Effects of Self-Regulatory Resource and Message Complexity on Confirmatory Information Processing

**Ryuwon Kim**

Ph.D. student, Korea University\*

**Se-Hoon Jeong**

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ole of self-regulatory resource depletion and message complexity as factors that moderate the tendency of confirmatory information processing.

## Methods

We first measured biased assimilation and selective exposure after presenting information that was consistent or inconsistent with the decision the subject made about candidates in an election. Next, we confirmed whether this confirmatory information processing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resource depletion and the level of message complexity.

## Results

The interaction effect of resource depletion and message complexity was found for selective exposure. Specifically, message complexity did not affect selective exposure in the case of no resource depletion. However, in the case of resource depletion, selective exposure to decision-consistent information was observed to be stronger when message complexity was high.

## Conclusions

The results show that cognitive bias can be controlled by the level of self-regulatory resources and message complexity.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mmunication practitioners to reduce biased processing.

**KEYWORDS** confirmatory information processing, biased assimilation, selective exposure, message complexity, self-regulation, self-regulatory resource

---

\* sabim@korea.ac.kr, First Author

\*\* sjeong@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